

## 시나리오

제목	접속, School Community!
내용	
<p>‘3교시 수학 수업이 10분 전입니다. Math Class로 이동해주시길 바랍니다. 이동하는 경로는…….’</p> <p>스마트 워치에서 알람이 울린 지도 모른 채 GIV(Groove with Idols VR)에 열중하고 있었다. 내 최애 그룹인 금진스와 같이 Hype Girl을 연습하던 중,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온다.</p> <p>“김민지! 안 들려? 오늘 수학 수행 있다고!”</p> <p>“Cause I~ know what you... 뭐라고? 수학 수행?”</p> <p>“정신 차리고 얼른 와. 게임이 그렇게 재밌어?”</p> <p>“수행만 아니었으면 데뷔였는데 아쉽, 방금 내가 센터였거든. 얼른 가자!”</p> <p>2052년, 서울의 어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나와 강해린은 작년부터 실시된 AI 기반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. 5차 산업 혁명으로 인간과 인공지능은 사회의 공동체가 되어 함께 살아가고 있다. 이에 맞추어 교육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. 과목별로 인공지능 보조 교사가 존재하고, 학생마다 개인 역량, 학습 능력, 지능 등을 분석하여 이에 따른 맞춤형 커리큘럼을 제공한다.</p> <p>‘모든 학생이 출석을 완료하였습니다. 수업을 진행하여 주세요.’</p> <p>“자, 오늘은 커뮤니티에 공지한 수행평가를 하도록 할게요. 태블릿에 문제가 올라오면 팀별로 수행하고, 수업 시간 전까지 제출합니다.”</p> <p>띠링, 책상과 연결된 태블릿 보드에 수행평가 문제가 올라왔다. 평가 항목은 선형 회귀 알고리즘을 이용해 그래프를 제출하는 문제이다. 보조 AI는 태블릿과 연결되어 필요한 프로그램만 제어하고 부정행위도 검사한다.</p> <p>“어제 VirtualRegressor(메타버스를 이용한 회귀 분석 모델 구축 앱)으로 연습하길 잘했다. 역시 반장 최고!”</p> <p>“같이 연습해 준 덕분이야. 해린아, 너희 팀은 잘 해결했어?”</p> <p>“출력 변수를 설정하는 게 어려워서 끝까지 못 했어. 그래도 AI가 자동 저장하고 제출은 해서 다행이야.”</p>	

제목	접속, School Community!
내용	
<p>다음 수업을 알리는 수신음이 여기저기 도착한다. 다음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악 시간이잖아! 제일 먼저 가서 피아노 실행해야지. 어제 HANI와 같이 작곡했던 곡이 마음에 쏙 들었다. HANI는 작곡 전용 인공지능 봇으로 ‘작곡을 사랑하는 모임’ 커뮤니티에서 10대 사용자들의 인기를 사로잡았다. 키워드 3개만 던져줘도 세련된 멜로디를 출력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자 내가 좋아하는 이유이다. 설명할 수 없는 내 감정마저 느껴지는 기분이다.</p> <p>“오늘은 낭만주의 음악의 역사를 살펴보겠어요. 다들 VR 기기 착용하고 쇼팽의 역사 채널로 들어오세요. 각자 역할 배정 받았죠?”</p> <p>“뭐야. 나 왜 백작이야? 쇼팽 하고 싶었는데.”</p> <p>“난 백작 부인인데. 해린이가 쇼팽이야?”</p> <p>가상현실 체험은 스크린으로 영화를 감상하는 것보다 현실성 있고 흥미로웠다. 직접 쇼팽의 연주회를 온 느낌이었고 쇼팽이 된 해린이가 연주한 ‘환상곡’을 여러 느낌으로 편곡해보고 싶었다.</p> <p>“애들아, 오늘 너희의 점심은 뭐니. 난 오늘 양배추쌈 먹는다. 어제 과자 좀 먹었다고 나트륨 수치 올라갔대.”</p> <p>“민지, 네가 과자를 좀 먹어? 맨날 프링글스 한 통 다 먹으니까 그러지. 난 하나도 못 먹겠던데.”</p> <p>“넌 오늘 밥이나 다 먹어. 맨날 다이어트한다고 밥 다 남겼다가 저번처럼 센서 울리게 하지 말고. 뽀용뽀용, 강해린 학생이 밥을 다 남겼습니다!”</p> <p>“조용히 해... 애들이 다 쳐다보잖아. 점심 먹고 GIV 하러 갈 거야?”</p> <p>“아까 체육관 시설 점검 끝났다고 해서 유진이랑 배드민턴 치려고. 너는?”</p> <p>“난 오늘 정독실 가서 공부하려고. 곧 기말이잖아.”</p> <p>“밥 먹을 때 시험 이야기하는 거 아닌데, 체하기 전에 다 먹어야겠다. 나도 오늘까지만 놀고 진짜 공부할 거야.”</p>	

제목	접속, School Community!
내용	
<p>우리 학교에는 인공지능 기반 시설들이 많이 있다. 그 중,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이용한 게임 시설이 제일 인기가 많아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다. 블루투스 연결만 하면 친구들과 같이 FPS 게임을 즐길 수 있고 달마다 게임 대회도 열린다. 나와 유진이는 점심을 다 먹고 체육관으로 갔다. 3D 스크린 경기장에서 축구, 야구, 배드민턴 등 친구들과 함께 경기를 할 수 있다.</p> <p>‘해린 님, 안녕하세요. 오늘의 학습 모드를 설정하세요.’</p> <p>“오늘은 조용하고 집중되는 백색 소음과 조명으로 부탁해.”</p> <p>‘설정하였습니다. 오늘은 1교시 AI 윤리에 대한 이해도 평가가 100점 중 64점입니다. 개인 맞춤형 지도를 시작하겠습니까?’</p> <p>“시작할게. 수업 필기 자료와 핵심 키워드 정리해 줘.”</p> <p>‘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수업의 핵심 키워드는…….’</p> <p>하교 시간이 다가왔다. 나는 서둘러 신발을 갈아신고 친구들과 게이트로 향한다. 학교에서 아파트까지 연결된 게이트는 Auto Shoes로 이동할 수 있다. 소요 시간은 약 2분이지만 매일 늦잠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등교한다.</p> <p>“우리 집 가서 엽떡 먹는 거 안 잊었지? 나 이미 드론 배달로 시켰다고.”</p> <p>“드론 배달 이제 안전한 거 확실해? 저번에 내 친구 머리에 짜장면 맞았다는데…”</p> <p>“센서 기능 추가되었다고 안심하래. 아, 배고파.”</p> <p>지하로 연결된 게이트는 집까지 안전하게 하교할 수 있다. 등하교는 편하지만 게이트로 다닐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. 지금의 도로는 쓰레기와 미세먼지, 온실가스가 가득하다. 20년 전보다 도로의 반 이상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, 클린봇(AI 기반 청소 시스템)이 도로를 청소하고 있지만 쓰레기를 줄이기는 힘들었다. 5차 산업 혁명으로 인공지능과 로봇을 개발하면서 삶의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, 실패한 잔여물은 땅바닥으로 남겨졌다.</p>	

제목	접속, School Community!
내용	
<p>“드론 배달 벌써 왔어. 해린아, 얼른 먹자.”</p> <p>“잘 먹겠습니다!”</p> <p>“다 먹고 버시티(Vircity, 메타버스 기반 커뮤니티 앱)에서 사진 찍자. 새로운 포토부스 열렸대. 옷 뭐 입고 찍지?”</p> <p>“좋아. 근데 너 아까 배달 받으면서 도로 봤어? 쓰레기가 더 심해진 것 같아.”</p> <p>“그래? 난 잘 모르겠던데. 와, 이따가 버시티에 금진스 온대. 무대 구경 가야지!”</p> <p>“난 버시티보다 우리 중학생 때 갔던 한강이 더 좋은데…. 언제쯤 다시 갈 수 있을까?”</p> <p>해린이는 예전 추억들을 자주 말하고는 한다. 현실보다 더 완벽한 버시티에서 모두 할 수 있는데도 말이다. 한강에서 라면 먹기도 가능하고, 포토부스에서 사진도 찍을 수 있다. 메타버스지만 현실과 같은 커뮤니티에 강해린은 적응하기 힘든가 보다.</p>	